



2023.01.31.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최세중 경제분석관

작성 | 진익 경제분석국장

이규민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김경수 경제분석관	조은영 경제분석관
박승호 경제분석관	최세중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유근식 경제분석관
김원혁 경제분석관	김상미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의 정리·분석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에서 대외경제 현황 파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2023. 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
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1. 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 흑자기조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적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들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율 및 금융시장 불안,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경제가 직면한 8대 현안을 선정하여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물가, 금융, 재정, 투자, 수출, 인구, 기후·에너지 위기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I장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II장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III장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금융), IV장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재정), V장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투자), VI장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수출), VII장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인구), VIII장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 경제의 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차 례

요 약

I.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 1

1. 검토 배경	1
2.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3
3. 경기현황 및 성장경로 점검	5
4.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의 목표	8

II. 물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 15

1. 검토 배경	15
2. 현황	16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22
4. 현안 분석	24
5. 요약 및 시사점	36

III. 금융: 글로벌 금리상승의 방향성 및 위험요인 / 43

1. 검토 배경	43
2. 현황	4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46
4. 현안 분석	47
5. 요약 및 시사점	66

IV. 재정: 팬데믹 이후 재정운영 방향 / 67

1. 검토 배경	67
2. 현황	68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75
4. 현안 분석	76
5. 요약 및 시사점	85

V. 투자: 위축 위험 속에서 활력 유지하기 / 87

1. 검토 배경	87
2. 현황	8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91
4. 현안 분석	94
5. 요약 및 시사점	100

VI.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 107

1. 검토 배경	107
2. 현황	109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17
4. 현안 분석	119
5. 요약 및 시사점	128

VII. 인구: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저출산 / 131

1. 검토 배경	131
2. 현황	133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38
4. 현안 분석	140
5. 요약 및 시사점	151

VIII. 기후·에너지 위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 153

1. 검토 배경	153
2. 현황	154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157
4. 현안 분석	158
5. 요약 및 시사점	178

Ⅵ.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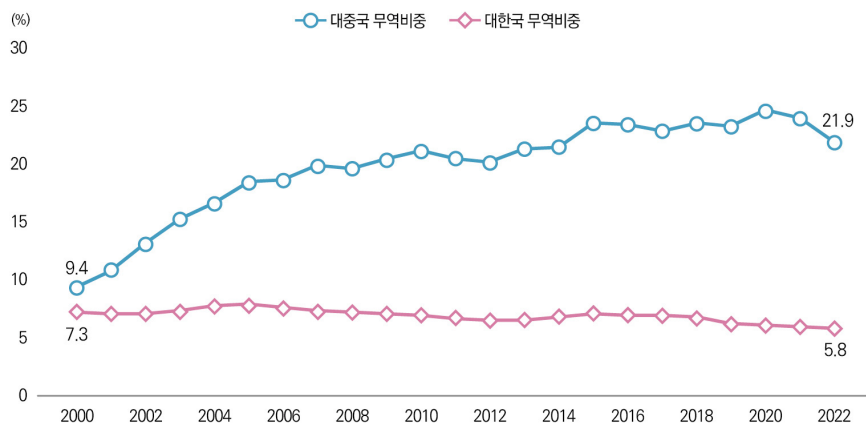
□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 확산

-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으로 탈세계화 흐름 대두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안보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국가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됨
- 주요국들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
 - 2022년 기준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 및 중국의 대한국 무역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

□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움직임 확산

- 미국과 EU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로의 쏠림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
 -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 EU는 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
-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중간재 자급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의 위상이 상승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증가
-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각국 정부의 경제안전 보장정책의 동향 파악이 중요해지고, 탄력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

□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

- 향후 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국 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
-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대응 필요
-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인책 마련 필요
 -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
 - 탈중국 해외기업들의 빠른 국내 이전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 완화 특례 등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

VI. 수출: 신보호무역주의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 모색

1. 검토 배경

□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무역안보론¹⁾이 대두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신흥국들은 제조업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
 - 전 세계적으로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저가의 신흥국 제품에 의한 자국 산업 침해를 우려
-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무역안보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공급망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각종 조치를 시행
 - 대중국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철강, 가전제품 등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시행

□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로 경제보복이 현실화

- 세계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동시에 국가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경쟁국을 압박²⁾
-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2016. 7.)에 대해 한류 제한령,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장벽 강화, 보조금 차별 조치 시행³⁾⁴⁾ 등 경제보복 조치로 맞대응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02-6788-4677)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uk0909@assembly.go.kr, 02-6788-4791)

최세중 경제분석관(sjchoi@assembly.go.kr, 02-6788-4679)

- 1)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안보란 국가경제 필수품목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국가 전략자산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
- 2) 이효영,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08, 국립외교원, 2022.3.

-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2019. 7.)
 -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서는 한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수입처를 벨기에와 대만으로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 코로나19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세계무역의 공급망⁵⁾ 교란을 가중

-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하는 한편, 여러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 국가의 경제활동 봉쇄(lock-down)와 물류 차질은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짐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하던 중국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내 봉쇄조치는 전세계적으로 생산 및 물류 차질을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산업활동도 제약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

-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한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1.9%로 높은 수준
-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⁶⁾
 - 미국의 통상규제를 통한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 추세는 중국산 부품 활용을 억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⁷⁾으로 이어짐
 - 유럽연합(EU)도 IRA와 유사한 「핵심원자재법(CRMA)」⁸⁾을 추진 중

3)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2016. 12.)

4) 유현정·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5, no.2,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5)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부터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재화,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뤄지는 연결망을 의미

6) 연원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4 No.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4.

7)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과 국민 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치, 의료비 및 에너지 비용 감축 등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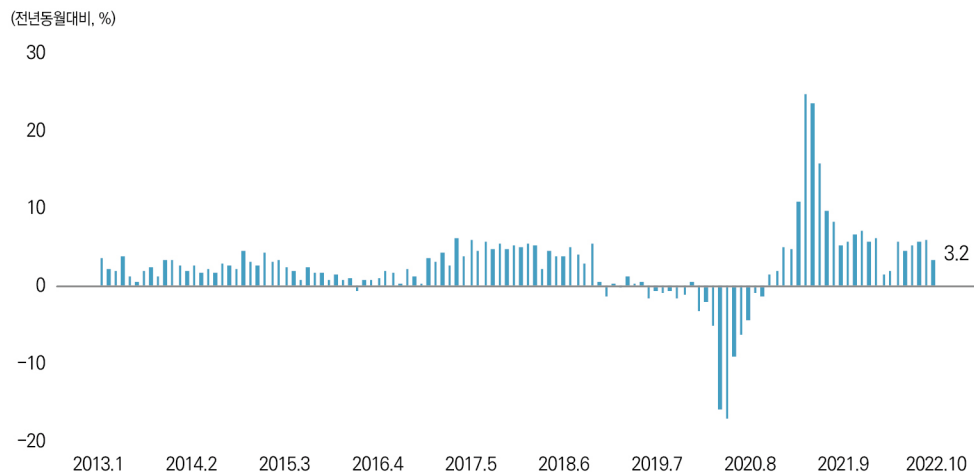
8)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와 같은 주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및 동맹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

2. 현황

□ 최근 세계 무역량은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2022년 세계 무역량은 9월까지 5~6%대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 차질 등이 심화되며 10월 3.2%로 둔화
 - 2022년에는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 중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세계 무역량 성장세가 둔화

[그림 VI-1] 세계 무역량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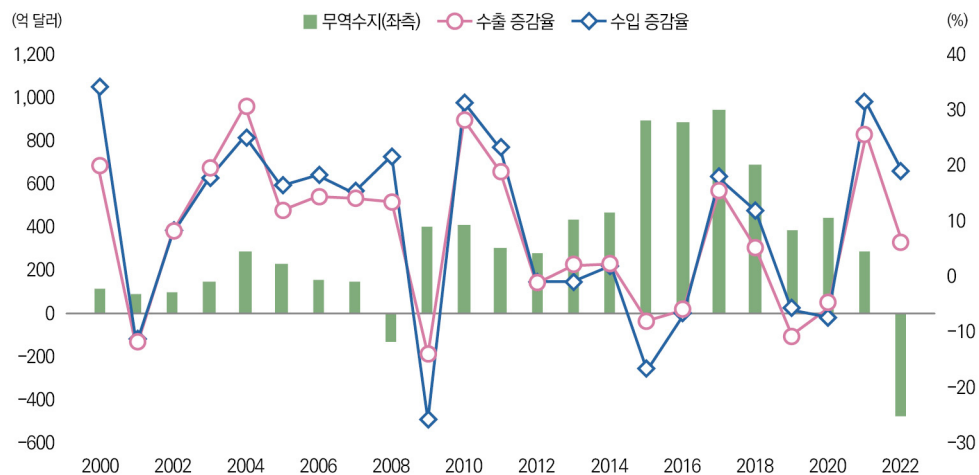
- 2023년 세계 무역량은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정책 기조, 보호무역정책 등으로 인한 주요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해 2022년보다 축소될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량이 2022년 3.4%에서 2023년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2022.10.)

□ 2022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해 2021년 12,595억달러 상회한 14,150억 달러로 12.5% 증가

- 수출은 2022년 중 3월(637.9억 달러)과 5월(615.9억 달러)에 각각 역대 수출 실적 1, 2위를 달성하며 증가세를 이어가다,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
 - 반면, 주요국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나타나면서 4분기부터는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
- 수입은 공급측면 불안정성 심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1년 6,151억 달러 대비 18.9% 증가한 7,321억 달러를 기록
 - 2022년 원유, 가스, 석탄 모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며 3대 에너지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26.1%인 1,908억 달러를 기록⁹⁾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관련 부품·장비 수입이 증가하며 중간재 수입도 증가
- 무역수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
 - 단, 대규모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업 기반의 일본, 독일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그림 VI-2] 우리나라의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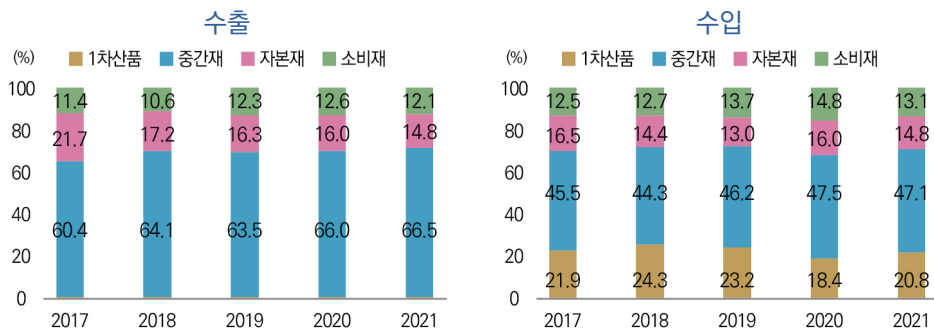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9) 전년대비 유가(두바이유) 39%, LNG(JKM) 128%, 석탄(호주탄) 161% 증가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준인데 특히 중간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의 무역은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주력 수출 산업에서 중간재의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¹⁰⁾
 -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

[그림 VI-3] 우리나라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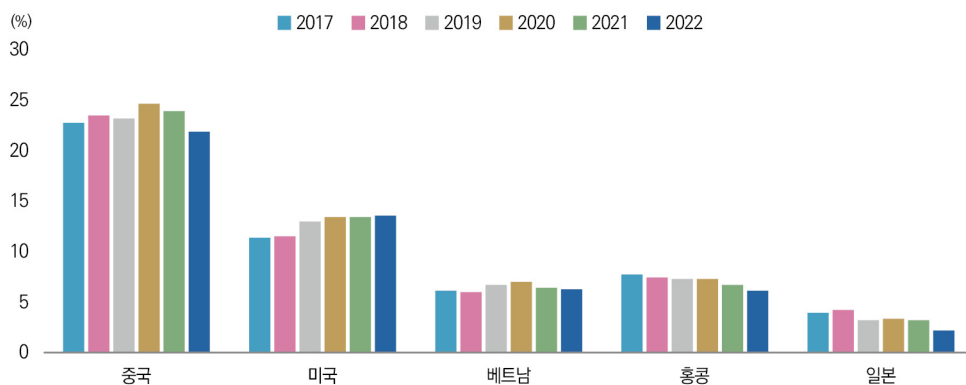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대상 국가 중 중국이 무역량 1위 자리를 지속

- 2022년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를 차지, 대중국 수출입 비중은 각각 22.8%, 21.1% 수준

[그림 VI-4] 우리나라 교역액 중 상위 5개국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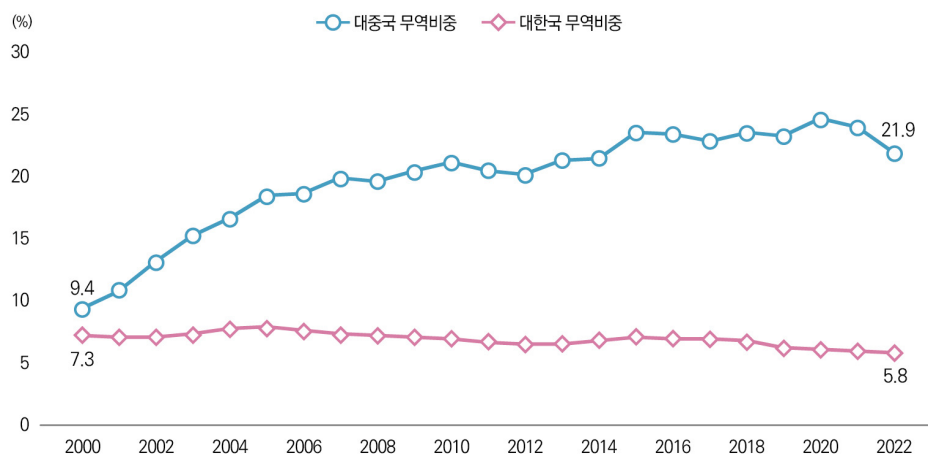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10) 민은지·이선경,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조사통계월보』 제76권 제6호, 한국은행, 2022.6.

□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며 불안정성 심화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점진적으로 감소¹¹⁾
 -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2000년 9.4%에서 2022년 21.9%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비중은 동기간 7.3%에서 5.8%로 감소

[그림 VI-5]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비중 및 중국의 대한민국 무역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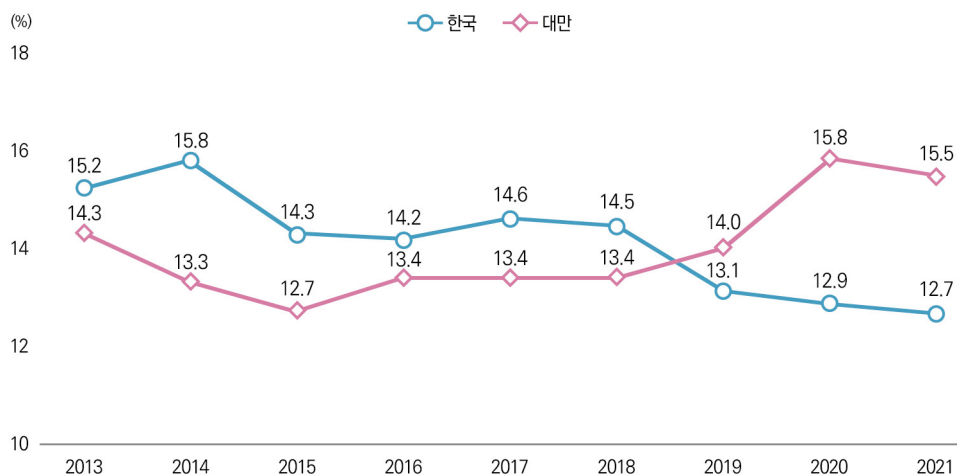
□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수입대체로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이 감소

-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중국의 투자와 수출에 민감한 구조
- 중국 내 생산기술 향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 확대에 따라 한국산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 상당 부분을 중국산으로 대체
 - 중국의 수출용 생산을 위한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금융위기 이전 2007년 10.2%에서 2021년 8.1%를 기록
 - 중국 내수 소비를 위한 한국산 중간재 및 최종재의 수입은 2007년 8.4%을 기록했으나 2021년 6.5%를 기록

11) 한 나라에 대한 무역(수출입)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대외무역서 그 나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 일례로 2021년 중국발 요소 수출 금지로 발생한 국내 경유차용 요소수 부족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

- 중국에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ICT) 제품군에서 대만과 아세안의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을 대체하며 우리나라 제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¹²⁾
 - 우리나라 ICT 제품은 2017년 20.5%에서 2021년 17.9%로 감소한 반면, 대만과 아세안의 수입점유율은 각각 5.6%p, 1.9%p 증가
-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대만의 수입 비중이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상회
 - 대만의 비중은 2018년 13.4%를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2017년(14.6%) 이후 감소세로 전환

[그림 VI-6] 중국의 중간재 수입 중 대한민국·대만의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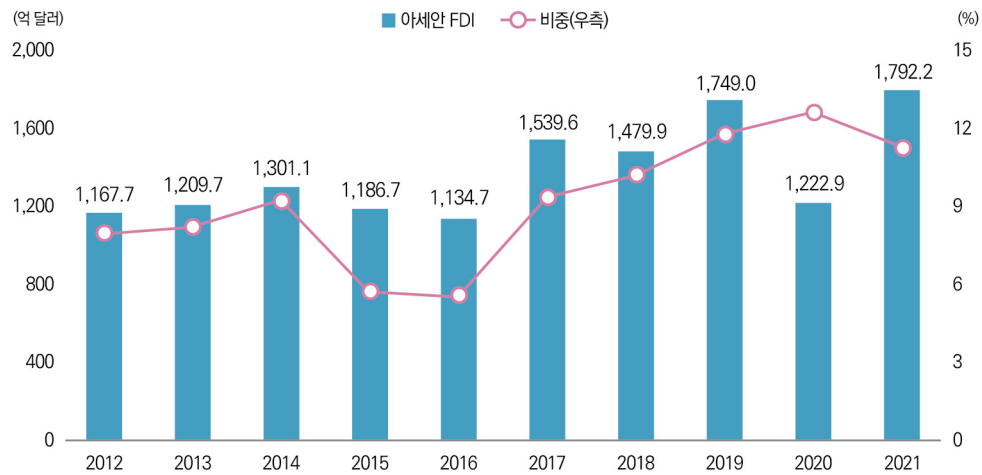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아세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 축소 등으로 새로운 공급망 구축 및 다변화 움직임이 발생
 - 전세계에서 아세안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비중이 증가

12) 김아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8.

- 지리적 근접성, 지역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아세안 5국¹³⁾과 동아시아국가 간 무역연계성 확대
 - 동아시아 국가의 대아세안 5국 FDI 투자 증가 → 양 지역 간 무역연계성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용

[그림 VI-7] 아세안의 FDI 유입액 및 전 세계 FDI에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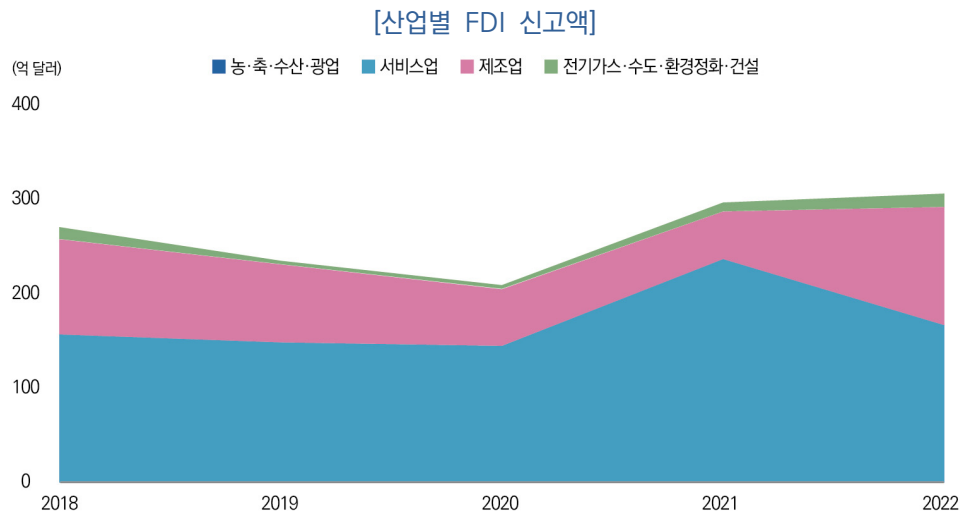


자료: UNCTAD

1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BOX 16]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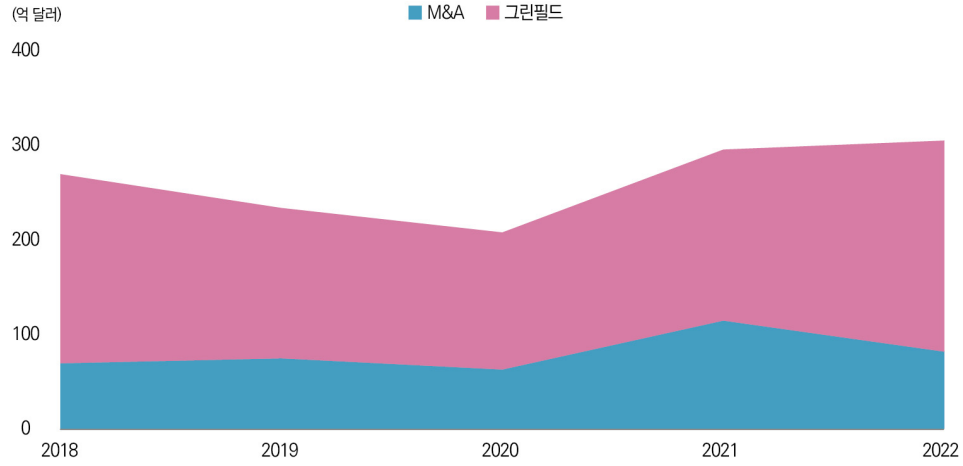
-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22년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304.5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
 - 제조업은 전년대비 149.4% 증가한 124.8억 달러를 기록
 - * 제조업 중 화공업 부문이 53.6억 달러(43.0%), 전기·전자 부문이 34.5억 달러(27.7%)
 -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29.6% 감소한 165.8억 달러를 기록
 - *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 부문이 46.8억 달러(28.2%), 도·소매유통 부문이 34.1억 달러(2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M&A형은 전년대비 28.8% 감소한 81.3억 달러를 기록
 - * M&A형 투자는 기존 주식 취득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
- 그린필드형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223.2억 달러를 기록
 - * 그린필드형 투자는 자본투자를 통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설치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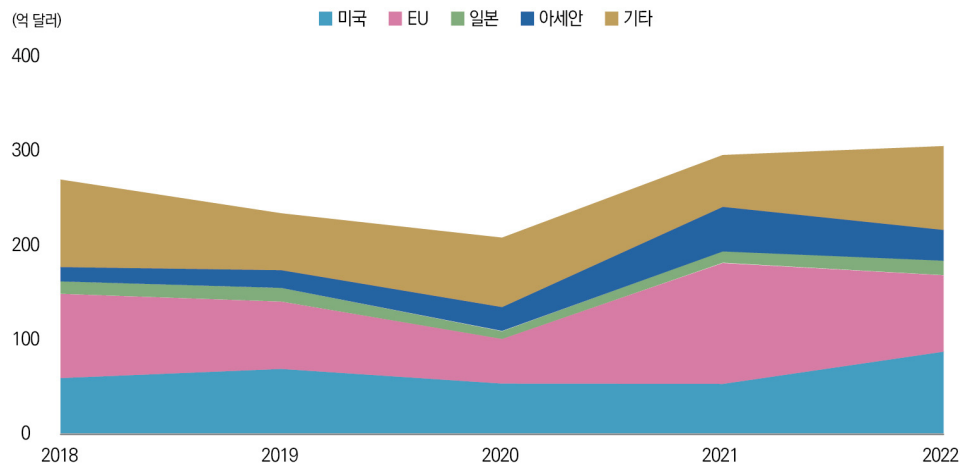
[유형별 FDI 신고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20~2022년간 EU의 투자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
 - 미국의 투자는 전년대비 65.2% 증가한 86.8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28.5%)을 차지
 - EU의 투자는 전년대비 36.9% 감소한 80.7억 달러로 26.5%의 비중을 차지
 - 일본의 투자는 전년대비 26.2% 증가한 15.3억 달러로 5.0%의 비중을 차지
 - 아세안의 투자는 전년대비 30.9% 감소한 32.8억 달러로 10.8%의 비중을 차지

[지역별 FDI 도착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2023년 정부 정책 방향

□ 정부는 공급망 체계를 고도화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할 계획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망 관련 정책을 연계·조율하고 공급망 확보를 위한 유턴기업 인정 범위 및 보조금 지급대상 등 추가 확대
- (해외자원)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강화를 추진
- (식량안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밀, 콩 등)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 해외공급망을 확보

□ 공급망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현

- 범국가적으로 통일적인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 및 지원을 규율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 정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위험관리) 위험포착 → 위험예방 → 위기대응의 주기별 관리
 - 국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6.29.)」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자원·원재료 등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추진

□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확대

- 신산업 전환¹⁴⁾ 투자 시 현금지원 요건 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 지원을 확대(5~7년 → 최대 15년)

□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신규 시장 개척 및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무역금융 규모(2022년 351조 원 → 2023년 360조 원¹⁵⁾)를 확대

14) 기존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 수출기업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 수출 초보기업이 운영자금 대출 시 90%까지 보증
- 수출 1,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최대 2.7%p 이차보전

[BOX 17]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재정사업

□ 글로벌 공급망 정보분석 등을 위한 신규 예산 편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 공급망 대응 시나리오 구축, 대체 수입선 발굴 및 현장 검증
 -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지원(신규): (2023) 16억 원

□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가부담 완화를 위해 부지 매입 이후 임대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투자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을 지원
 - 투자유치기반조성: (2022) 1,475억 원 → (2023) 1,569억 원

□ 석유·광물 비축 확대, 도입선 다변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

-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지원
 - 석유비축사업출자: (2022) 282억 원 → (2023) 673억 원
-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핵심원료인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핵심광종 구매 및 비축기지 확보 마련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022) 112억 원 → (2023) 372억 원
-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유전·광물자원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30% 이내에서 융자지원
 -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2022) 631억 원 → (2023) 1,754억 원

□ 수출거래 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을 촉진

- 무역보험에 가입된 수출입 계약건에 대해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업
 - 무역보험: (2022) 6,385억 원 → (2023) 6,503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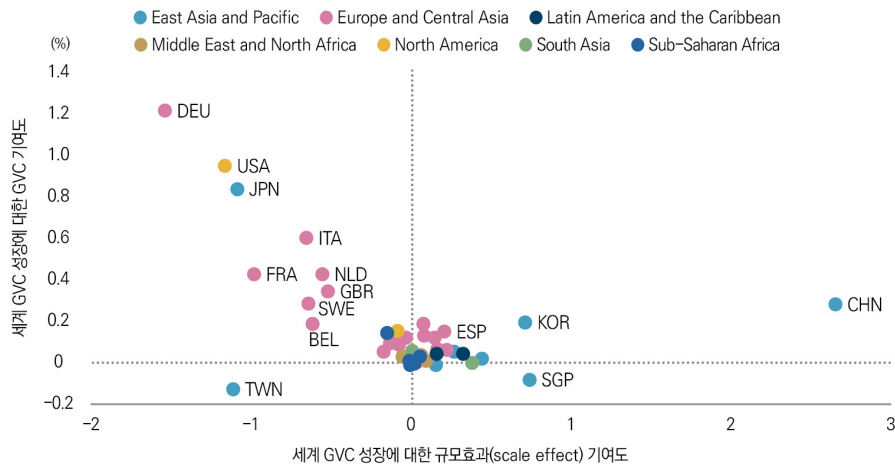
15) 한국무역보험공사(250조 원),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14조 원), 기술보증기금(3.3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3조 원) 등

4. 현안 분석

□ 2008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탈세계화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부상

-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이루어짐
 - 소련의 붕괴,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무역비용 감소로 인하여 가파르게 세계화가 진행¹⁶⁾
 - 여러 국가에 걸쳐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생산의 파편화를 통하여 재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그림 VI-8] 1990년부터 2015년까지 GVC 확장을 이끈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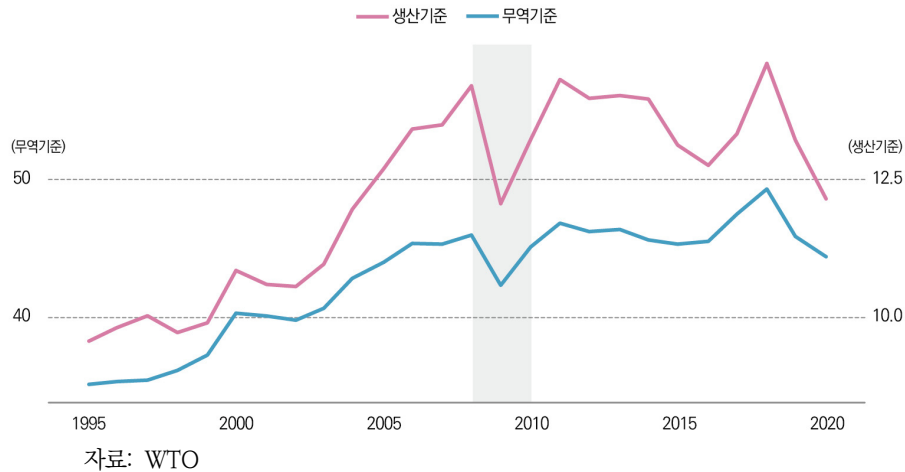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세계화 추세는 하락세로 급반전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둔화되며 무역 안보, 보호무역주의 등의 의제가 대두되며 탈세계화 진행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무역 경색이 심화
 - 물류비용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무역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함과 동시에 전세계적 경기둔화로 인하여 탈세계화 지속

16) Subramman and Kessler의 2013년 논문에서는 이러한 폭발적 세계화 현상을 'hyperglobalization'이라 부름

[그림 VI-9]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중(1995~2020)



□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전 보장의 중요성이 대두

- 안전보장의 대상 범위가 경제·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
 -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각국 정부의 경제안전 보장정책의 동향 파악이 중요해지고, 탄력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
-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필요
 - 공급망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용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여 제품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 방안 마련 필요

□ 미국과 EU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을 제

- 미국은 주요 4대 산업 공급망 조사(2021.2.)를 통해 주요 품목(반도체, 배터리, 희소광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
 - 공급망의 취약성 주요 요인으로 미국 내 생산능력 부족, 동맹국, 경쟁국을 비롯한 무역상대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소싱의 지리적 집중, 국제협력 부족 등을 제시
 - 특히 배터리, 의약품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

- EU는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산업 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2020.3.)
 - 핵심 소재, 기술, 식량, 보안, 인프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로봇공학, 초소형전자공학,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에 관한 산업 전략을 제시

□ 해외 자본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인책 마련 필요

- 중국 내의 외국 기업들은 이미 계획했던 투자를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주중 EU상공회의소(2022.4.)와 주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2022.7~8.)의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유럽 기업들의 약 1/4, 미국 기업들의 약 1/3 가량이 중국 외 지역으로 투자를 이전했거나 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응답
- 소재·부품·장비업체의 투자 이전에 있어서는 운영, 유지를 위한 축적된 기술력이 필수적 조건임
 - 이미 중국을 벗어난 자본의 아세안으로의 이전이 진행 중이지만, 소재·부품·장비업체의 경우 투자 이전처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보다 유리한 입장
 - 우리나라로 탈중국을 고려 중인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및 규제완화 특례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을 펴는 것이 필요

□ 중국 무역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 대중국 수출 중 제3국에서 최종 소비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용 중간재 비중이 감소
 - 2021년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9.8%로 그 중 우회수출을 위한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비중은 금융위기 이전 2007년(36.6%) 대비 12.7%p 하락 23.9%를 차지

[표 VI-1] 2021년 중국의 내수 및 우회수출을 위한 대한민국 수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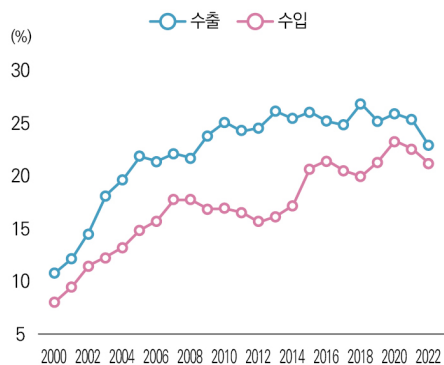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p)

	금액	비중	비중 차 (2007년 대비)
최종재(A,내수)	42,873	20.2	1.1
중간재(B=a+b)	168,868	79.8	-1.1
중국 내수(a)	118,223	55.8	11.5
우회 수출(b)	50,645	23.9	-12.7
미국	10,220	4.8	-3.3
독일	2,980	1.4	-0.5
일본	3,109	1.5	-1.4
한국	1,919	0.9	-0.2
전체(A+B)	211,741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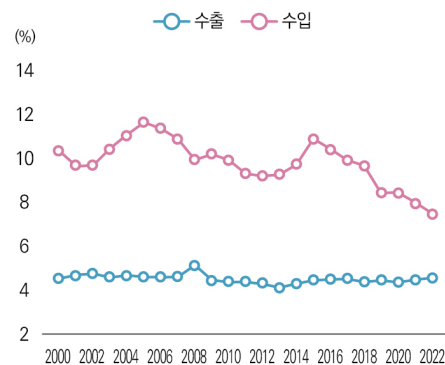
자료: 강내영·조의윤·도원빈,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Trade Focus 2022년 27호, 한국무역협회, 2022.11.

-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중 대중국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다 2019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 중국의 내수 및 우회 수출용 대한민국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VI-10]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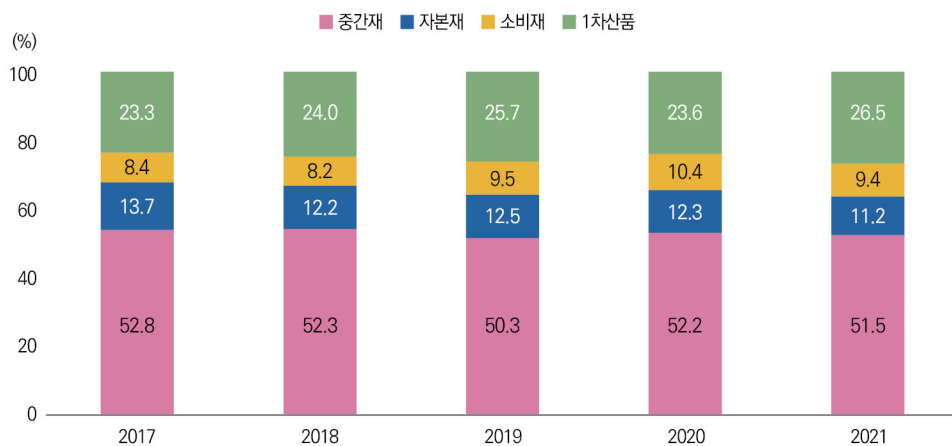
[그림 VI-11]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

- 중국은 가공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변화를 추진하면서 무역의존도가 하락
 - 2006년 최고치(64.2%)를 기록한 후 2020년 37.4%까지 하락
 - 가공무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국의 역할에 변화 발생
- 가공무역 비중 축소는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시장의 성장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수출용 생산을 위한 전세계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
 - 2001~2007년까지 연평균 32.4% 증가하던 중간재 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2010~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9%로 그 증가폭이 크게 감소
- 중국 내수수요를 위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또한 감소
 - 2001~2007년까지 연평균 19.6% 증가하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은 금융위기 이후 2010~2021년까지 연평균 10.2% 증가에 그침

[그림 VI-12]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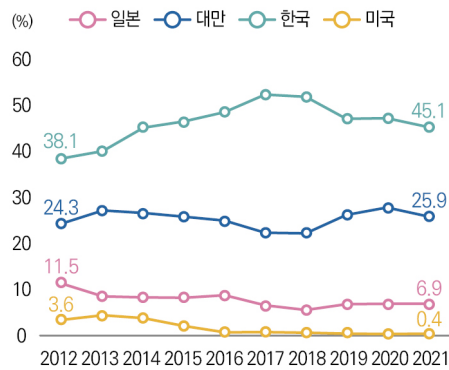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 중국 내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주춤세를 보이고,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부문은 하락세를 시현
 -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 하락세를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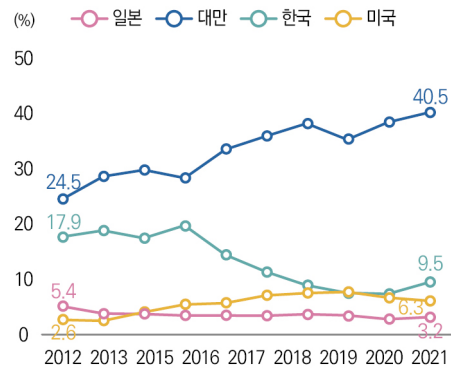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입시장에서 대만의 비중은 상승세로 2021년에 40.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2015년(20.0%) 이후 하락세로 2021년에는 9.5%의 비중을 기록

[그림 VI-13]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주요국 수입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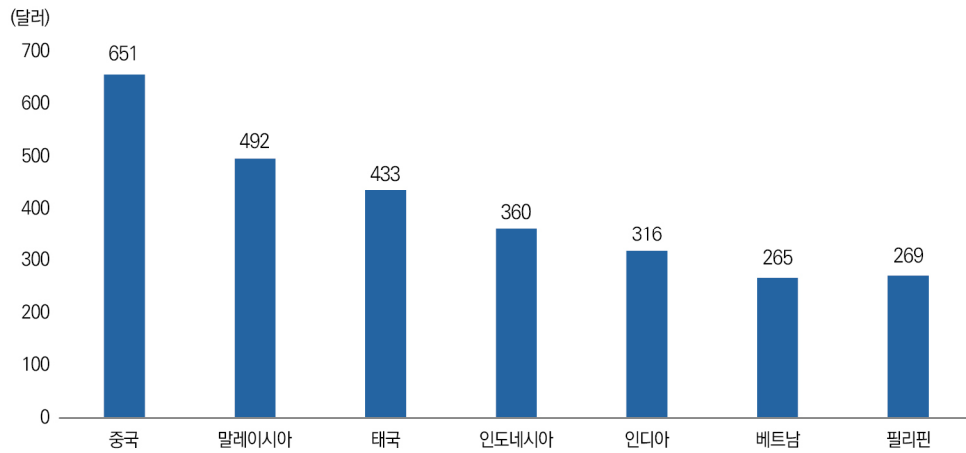
[그림 VI-14] 중국의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주요국 수입 비중 추이



□ 아세안의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중국 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가공무역 억제 및 중간재 자급화 등으로 아세안 주요국들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상승
 - 중국의 임금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0년 257달러에서 2021년 386달러로 확대

[그림 VI-15] 제조업 월간 평균 임금수준 비교(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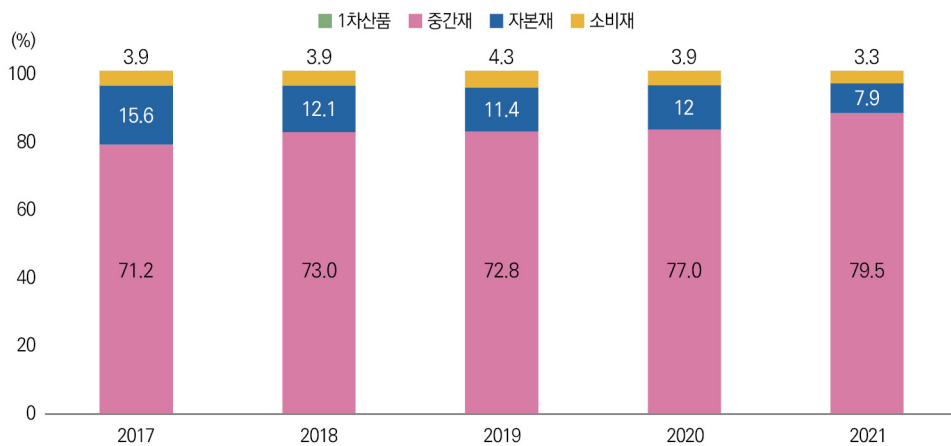


자료: JETRO

□ 아세안은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산거점으로 대두

- 공급망 교란 위험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기업들 또한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동
- 아세안의 대한국 수입은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1년 79.5%를 기록

[그림 VI-16] 아세안의 가공단계별 대한국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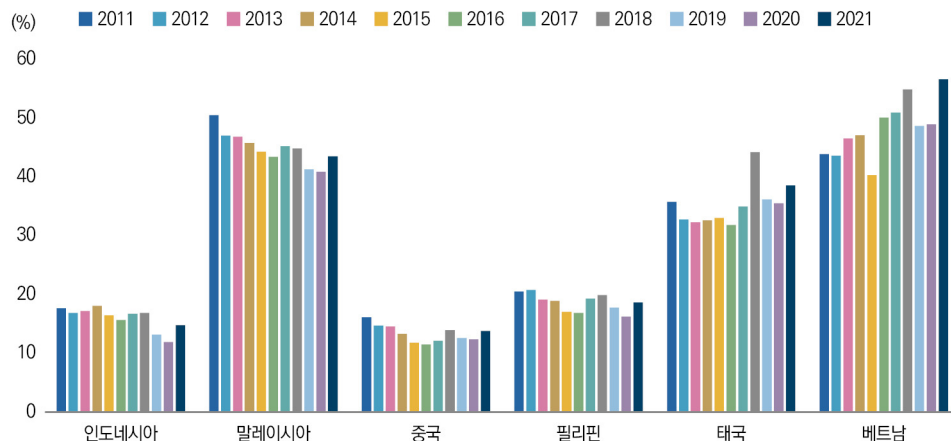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아세안 중 베트남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도¹⁷⁾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베트남의 GVC 참여도는 2021년 56.26%로 2011년대비 12.6%p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자체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VI-17] 아세안 5개국과 중국의 GVC 참여도(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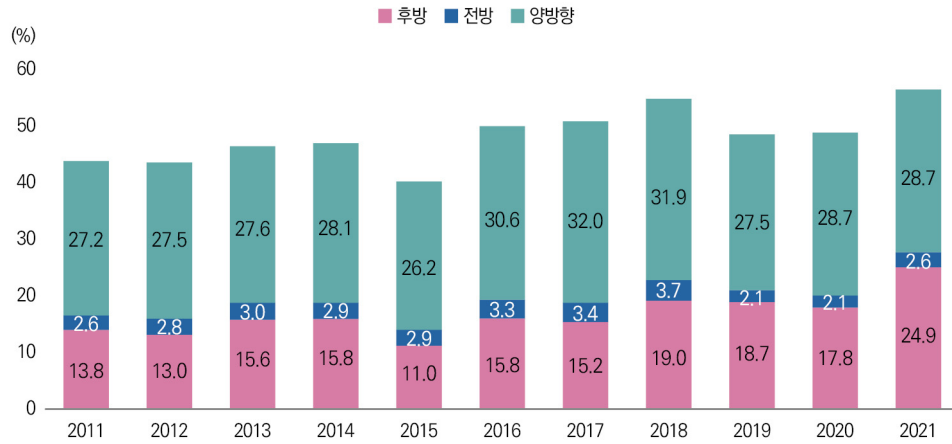
주: 전체 제조업 생산 중 GVC 관련 비중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베트남은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하는 GVC 후방참여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21년 베트남의 GVC 후방참여 비중은 24.9%로 2011년대비 11.1%p 상승

17) GVC 참여방식으로는 상대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등 투입재를 생산하는 '전방참여'와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하는 '후방참여'가 있고, GVC 참여도는 전방참여도와 후방참여도의 합으로 계산

[그림 VI-18] 베트남의 GVC 참여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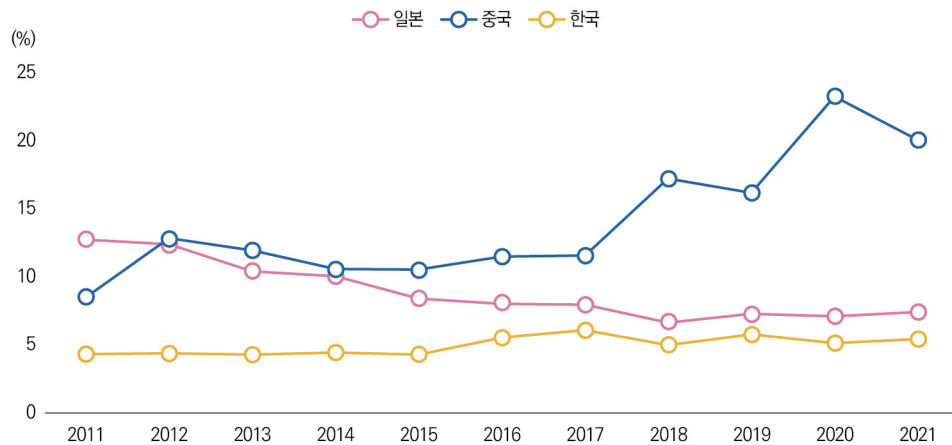


주: 전체 제조업 생산 중 GVC 참여 구성별 비중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 베트남의 GVC 후방참여 교역(제조업) 중 중국의 비중 상승폭이 높게 나타남
 - 2021년 베트남의 GVC 후방참여 교역 중국의 비중은 2011년대비 11.6%p 상승
 - 한국은 동기간 소폭(1.1%p) 증가에 그침

[그림 VI-19] 베트남의 GVC 후방참여 교역 중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 추이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5. 요약 및 시사점

□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추세 확산

-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로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으로 탈세계화 흐름 대두
-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안보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
 - 국가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됨
- 주요국들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올해에도 유지될 전망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는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2021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이고, 대세계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66.5%, 수입 47.1%를 기록
 - 2022년 기준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무역의존도는 하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

□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움직임 확산

- 미국과 EU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일부 국가로의 쏠림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리
 - 미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국가적 의제로 부각, EU는 산업의 해외 의존도 축소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
-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

-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중간재 자급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의 위상이 상승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이 증가
-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 및 각국 정부의 경제안전 보장정책의 동향 파악이 중요해지고, 탄력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

□ 우리 기업과 정부 모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

- 향후 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미국 IRA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
- 기업 측면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대응 필요
-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인책 마련 필요
 -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이 유리한 입장
 - 탈중국 해외기업들의 빠른 국내 이전을 위해 세액공제, 규제 완화 특례 등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발간일	2023년 1월 31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1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527-001997-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